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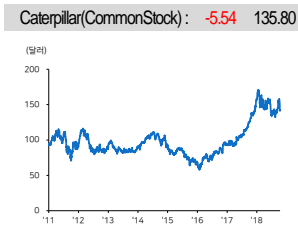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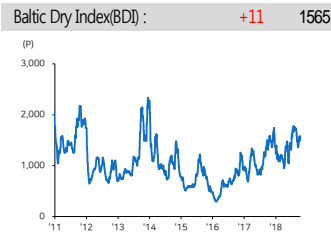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80.3	16.7	125,500	-5.3	-2.7	31.8	30.8	87.5	41.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294.8	20.5	386,500	0.1	-0.8	13.2	1.4	5.2	4.3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697.1	4.7	68,300	-2.4	6.4	16.6	-40.1	6.5	5.6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55.5	7.9	117,000	-2.9	1.7	-2.9	-30.8	7.4	5.5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605.3	18.0	7,310	-1.9	-9.4	17.5	13.0	46.1	22.9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334.1	9.6	31,100	-1.9	-6.9	29.3	123.7	7.8	16.1	0.9	0.9	12.4	5.4
현대미포조선	1,954.0	9.5	97,700	-1.2	-1.3	20.9	24.1	21.1	15.2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15.8	6.9	2,035	-1.9	-21.7	-29.3	-38.5	40.9	10.2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29.4	22.6	100,500	0.0	-11.5	31.2	84.7	17.7	17.3	2.4	2.2	14.6	13.3
두산발켓	3,889.7	26.4	38,800	0.9	6.0	28.5	9.8	14.2	13.4	1.1	1.0	7.4	7.6
현대로템	2,337.5	1.8	27,500	-0.9	-10.9	14.3	46.7	35.5	24.2	1.6	1.5	4.5	6.3
하이룩코리아	304.3	48.7	22,350	-4.3	-5.9	-4.5	-0.7	10.1	9.3	0.9	0.8	8.8	9.0
성광벤드	348.9	15.9	12,200	-3.6	-4.3	14.6	22.2	1,078.5	43.7	0.8	0.8	0.1	1.8
태광	351.1	12.8	13,250	-2.9	-7.3	25.6	10.0	79.1	38.6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464.3	14.2	12,500	-3.1	-16.1	-10.1	-18.6	21.4	7.7	0.4	0.4	2.7	6.0
두산인프라코어	1,875.5	21.0	9,010	-1.9	-2.8	-2.3	3.7	6.0	5.6	1.0	0.9	17.5	16.0
HSD엔진	143.8	4.3	4,365	-1.8	-3.2	16.7	69.9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138.7	10.3	32,200	0.0	-29.6	-6.5	-32.1	29.5	22.1	2.8	2.5	9.3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83.1	11.6	28,500	-1.0	6.7	23.4	-19.8	40.5	20.1	0.7	0.7	1.7	3.4
LIG넥스원	760.1	8.3	34,550	0.4	1.0	-1.7	-42.2	37.0	17.7	1.2	1.2	3.4	6.8
태웅	233.1	4.8	11,650	-2.1	-19.7	-20.2	-39.8	N/A	N/A	N/A	N/A	N/A	N/A
동성화학	214.2	5.5	7,940	-0.4	0.5	29.5	57.2	-24.4	25.6	2.9	2.7	-11.0	10.9
한국가분	302.5	13.4	6,880	3.5	1.5	19.9	28.4	106.7	23.8	1.0	0.9	0.9	4.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astern Pacific takes Hyundai Samho boxship haul past \$1.25bn

Eastern Pacific Shipping은 neo-panamax 컨테이너선 읍선보 7척을 현대상호중공업에 추가 발주했다고 알려짐. 발주규모는 총 12.5억달러를 상회하며, 1.5만 TEU급으로 건조될 예정임. Eastern이 발주한 선박 4+7척 중 6척은 LNG추진 방식, 5척은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New Borealis plant to boost VLGC shipments to Antwerp port

Borealis AG가 계획하고 있는 PDH(프로판 탈수소화) 플랜트는 가동을 시작하는 2022년 상반기에 VLGC 수요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연 75만톤 생산능력으로, 가동될 최대 기준 VLGC는 25~30척이 필요하다고 알려짐. 해당 플랜트는 지난 2월부터 FEED(기초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TradeWinds)

Woodside staying on target at Browse

Woodside Petroleum이 계획하고 있는 Browse LNG 프로젝트는 FEED를 위한 PQ(사전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두 기의 FPSO가 필요할 예정이며, 19년 상반기까지 PQ를 진행한 후 FEED단계에 진입할 예정임. 다만 Woodside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가 중국 대비 비용구조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언급함. (Upstream)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내년 후판 가격 줄다리기 벌써부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초엔 조선사들과 철강사들이 2019년 상반기분 후판 가격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2016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국내 조선용 후판 가격을 인상해왔고, 현대중공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후판 등 강판 유통가격은 76.6만원까지 상승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 방위산업 입찰 제한 풀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짐.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발주하는 방산 관련 사업에 입찰이 가능해짐. 관계자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이후 방사청에서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뉴스1)

Bernhard Schulte Shipmanagement's first LNGBV heads to the Baltic

Bernhard Schulte Shipmanagement(BSM)는 현대미포조선에서 LNGBV 1척을 인도 받은 후, 다음 LNG 벙커링 프로젝트를 찾았다고 알려짐. BSM이 추가로 발주할 선박은 1.2만CBM급이나 2만CBM급으로 알려짐. 2만CBM급 LNGBV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에 벙커링되는 선박임. (TradeWinds)

"VLCC 선가 2년 내 17% 상승"

현재 VLCC 운임은 하루 2.5만달러이나 2019년 4만달러, 2020년 4.5만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기존 전망치인 3.8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올해 겨울과 2019~20년 시황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운임이 크게 상승하면 VLCC 선가는 2년간 17% 상승할 전망이다. (선박뉴스)

대우조선, 해 넘기는 '로즈뱅크' 수주...목표달성 '빨간불'

대우조선해양과 싱가포르 셉코프마린이 경쟁하고 있는 로즈뱅크 프로젝트 입찰결과는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주처가 노르웨이 에퀴노르로 변경되면서 불확실성이 생김. 해양플랜트 설계기간 1년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하지 못하면 2천여명 해양플랜트 인력은 유류인력이 될 전망이다. (더벨)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외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